

# 국회 다시 정상화... 7월 부처 업무보고

## 4黨 정부 조직법 심사·청문회 개선소위 설치 등 합의

### 추경은 합의문서 제외... 운영위 조국 출석여부 주목

여야는 27일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 또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접견실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여파로 파행된 지 8일 만에 일단 정상화됐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날부터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소관 부처 장관이 임명된 상임위별로 7월 중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상임위별 업무보고가 진행되면 국회 운영위원회도 청와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게 된다.

야당은 인사검증 문제와 관련해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합의문에는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고만 썼다.

여당인 민주당은 또 인사청문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료제출과 증인체택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인사검증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청문제도 개선 소위(8명으로 구성)를 운영위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개헌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특

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정치개혁 특위를 새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 가운데 여야는 선거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개특위에는 입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여당인 민주당이 맡으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



도의회서 열린 은행 채용 면접  
용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고 안건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7월4일부터 18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개최기로 최종 합의했다.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는 11일(대법관 임명동의안 등 처리)과 18일 진행된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18일 자당이 반대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임명되자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했으며 이에 따라 19~20일 국회 운영이 파행을 겪었다.

이후에도 야당은 인사청문회 일정만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다만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참여에 대한 여야 간 이견으로 이번 합의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 밖에 여야는 지난번 합의 채택을 시도했던 사법제도, 4차산업 혁명, 미세먼지 대책 특위 구성 문제 등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2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전남도와 함께하는 'KB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 현장면접'에서 구직자들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면접우수자는 하반기 신입행원 공개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김영록 "쌀 수급 안정·가뭄 신속 대처"

### 농식품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답변서... "전남지사 출마 안 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전라남도 도지사 출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다른 국무위원 간에 농업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 추진되면 사퇴할 각오로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해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현안은 쌀 수급 안정"이라며 "쌀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15%를 차지하고 쌀 농가가 전체 농가의 57%에 이르는 등 우리 농업의 주축이 되는 품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개방 확대, 소비 정체,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해 농업과 농촌의 활로를 모색하는 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대기업이 농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과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심각한 가뭄에 대해 "가용 수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급수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어업자에 대해 피해에 따른 복구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농업 분야의 남북협력 방안에 대해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북한의 식량난 완화를 위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비료지원, 농업기술 교류, 황폐 산림 복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북 쌀 지원은 식량 사정이 어려운 북한 주민을 돕고, 국내 쌀 재고 문제도 해결할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선 "아직 미국의 구체적인 요구가 없다"면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 방안을 검토해 우리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여야,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낙연 총리,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어 여덟 번째다.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이 회의의 시작 5분여 만에 채택됐다.

기재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근무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분야 등 국제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춰 적격이란 의견이 다수였다"고 평가했다. 도덕성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 국정위 '100대 과제' 文대통령 방미 후 보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애초 이달 말로 추진했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 청와대 보고를 문재인 대통령 방미 후에 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국정과제 보고 시점을 다소 늦춘 것이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미국에서 귀국한 뒤에 국정과제를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애초에는 대통령의 방미 전에 비공개로 보고하고, 7월 중순에 대국민 발표를 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해 비공개 보고를 방미 뒤로 잡은 것이다. 대국민 발표 일정까지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7월 12일~15일 광화문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100대 과제를 국민에게 소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한국당 빠진 3당 추경 심사 공감대...해법 찾을까

### 세부사항엔 이견...심사 험로 예고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에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 대치 속 답보 상태에 빠졌던 추경의 해법 마련에 물꼬가 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여야 합의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로 추경심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들 야2당도 추경의 세부항목 등을 문제 삼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경에 강력히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28일부터 추경예산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가능한 상임위부터 소집 요구를 할 것"이라며 "바른정당은 들어온다고 하고 국민의당

은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한 상임위 13곳 가운데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곳은 5곳이다. 나머지 8개 상임위 가운데 예결 소위까지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곳을 중심으로 심사 착수에 시작한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다만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심사 착수한다고 한 적이 없다. (오늘 여야 4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결론을 못냈고 내일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민주당의 방침과는 결이 다른 말을 했다.

"28일 심사착수"를 두고 여야 간 의견이 갈리지만 조만간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를 착수할 상임위가 가동될 것이라는 관

측이 많다. 이날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추경 내용은 빠졌지만 여야 원내대표를 선출한 한국당을 뺀 여야 3당이 추경심사 착수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상태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만나 추경 해법 마련에 골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들을 만난 데 이어 이날 역시 백재현(민주당) 예결위원장을 국회에서 만나 추경 협조를 구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추경 심사 착수에 들어가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는 긍정적이지만 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 재정 부담이 된다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예결위 간사인 홍철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모든 정부에

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방법을 몰랐던 것 아니라 중장기 재정부담과 인사적체로 선불리 추진하지 못했다"며 "추경에서 공무원 1만2000명 증원과 임기 내 정규직 17만4000명 전환은 잠 무책임할 수도 있는 처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면서 가뭄대책과 농가지원 등 즉각적이고 시급한 사안이 추경에 빠진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야권은 또 법적 구성요건이 안되는 가운데 추경을 밀어붙이지 말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여야 3당 간 원만한 합의 말고도 이번 주에 집중된 인사청문회가 '추경 공감대'에 미칠 영향도 주의해야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인사청문 정국에선 한국당과 전선을 함께하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부적격 후보'들을 상대로 공세를 강화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여야 대치가 심해지면 추경에도 불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Aroma Life**  
www.aroma-life.co.kr

| '건강'과 '아름다움'을 모두 잡은 |

# 맞춤형 기능성 속옷의 명가 **아로마라이프**

- 한국, 미국, 일본, 중국에서 특허받은 유니크한 디자인
- 편안한 착용감과 생리적인 불편함을 해결한 제품
- 도레이社 LYCRA 를 사용 (별단면육각형)
- 특수 물질가공(원적외선, 음이온 방출)

(주)아로마라이프 상담 및 문의 **1588-2219**

<p><b>아모리온</b> 브라+슈트+거들 한국 특허 3단 일체형 슈트</p>	<p><b>아모리온 롱바디</b> 브라+슈트+거들+레깅스 4개국 특허 4단 일체형 슈트</p>	<p><b>아실리바디슈트</b> 블랙은사 바디슈트의 은사 레이스 품격회 1등</p>	<p><b>비비드아모르</b> 러닝+팬츠 일체형 남성용 슈트</p>
---	--	--	---